

‘박지원 쇼크’...호남 정치 중심 축 ‘흔들’

향소심서 의원직 상실형...향후 파장 촉각

박 “깨끗추기 판결, 수용할 수 없다” 강력 반발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활동 별다른 제한 없을 듯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향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호남 정치권은 물론 새정치연합 등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무죄 선고를 뒤엎은 예상 밖의 향소심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당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 일선에서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정치적 위기를 특유의 치열함으로 극복했던 박 의원이 이번에는 어떠한 돌파구를 만들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 **판결 내용**=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향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갈

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혜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향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의 진본이 있는 경찰관 한

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향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당장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부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을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정치권 파장**=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지원 의원이 향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깨끗추기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이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일부 피의사실에 대

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석연치 않다”며 이 처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당의 지도자들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음험한 시도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박 의원의 정치적 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바로 상임위원 법사위에 참석, 의원직을 사임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호남 정치권의 중심 축 역할을 하며 진노와 비노의 균형 추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의 정치적 상처는 당내의 역학구도는 물론 신당 창당의 흐름에 까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 선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엔 노영민 의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에 같은 당의 노영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투표에는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박 의원은 169표를, 노 의원은 172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박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은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국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장 모범적이고, 일하는 상임위로서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



박주선 의원

노영민 의원

조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무역·통상·자원·에너지·중소기업·특허에 이르기까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라며 “여러분의 해안을 모아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동철·권은희 “하남산단, 정부 지원 혁신산단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사진 왼쪽), 권은희 의원은 9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이 2015년 정부 합동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철,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하남산단은 혁신, 재생, 공모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 이번 정부합동 공모 사업에서 전국 23개 산업단지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하남산단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지원 아래 국비·시비·민간부문 사업비 총 2994억원이 투입돼 ▲노후 건축물 정비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업종개편 ▲지원시설 마련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근거법



인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또 하남산단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하남산단의 혁신산단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하남산단 기업체들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나섰고, 올 3월에는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함께 ‘혁신산단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공모사업 준비과정을 적극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향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망론’ 유승민 측근들에 “총선서 살아남으라”

원내대표단 해단식서 격려

향후 행보, 집중 조명 받을 듯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8일 밤 원내대표직을 던진 후 측근들과 만찬에서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돼서 남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찬은 원내대표단 해단식을 겸한 자리였으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 원내부대표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2주일간의 파동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퇴회견문에 담았던 ‘법과 원칙, 정의’라는 명분의 깃발은 움켜쥐었지만 이를 실현할 힘이 모자라 꺾였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 의원은 9일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도 이를 실현할 ‘힘’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원내대표직 수행 과정에서 절감했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의 “내년 총선에 다들 잘 돼서 남기를 바란다”는 말은 의례적인 덕담

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과 미래 행보의 일단이 담겨 있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비록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에서 타의로 물러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적 주기가 치솟고 지지도가 올라가며 개혁적 보수 세력의 아이콘,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부상했다. 정가에서는 ‘유승민 대망론’이라는 말이 벌써 회자하고 있고, 한 여론조사에서 여론 차기후보군 지지도에서 2위로

김무성 대표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결과까지 나온 터이다.

이에 따라 유 전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는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 유 전 원내대표는 당분간 외부 접촉을 삼가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원회(국방위) 활동 정도만 차분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의 휴가가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차기 당권·대권 주자로 자리 매김했다는 인식이 확산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외 행보를 재개하리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구·경북(TK)의 3선 의원인 유 전 원내대표가 이제 수도권으로 무대를 옮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항공기 김포~여수 2회 감축 운항 대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9일 대한항공의 김포~여수 2회 감축 운항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한항공은 현재 운항하고 있는 김포~여수 항공편 중 특히 아침 첫 항공편의 경우 김포에서는 30분 간격, 여수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아시아나와 시간대가 겹쳐 승객이 분산되는 등 양사가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공편 2회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같은 시간에 경쟁적으로 운항을 하다 보니 승객이 분산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4편 중 2편을 감축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한항공 측에 수요가 없어 감축하는 2편 중 1편은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 여수-제주를 매일 운항하도록 하고, 1편은 저녁 7시 대에 김포-여수를 운항하는 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돈 · 빌려 주실 분!

- ▶ 3억원 이상
- ▶ 연 12% 확정 이자
- ▶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 연 3억 순수의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단지
담양댐
한마음연수원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 금성 → 금과 →